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3. 18.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성 창 현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 장 사 무 관	조 재 연 이 상 전	전 화	042-481-4408 042-481-4597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임 호 근 박 문 수	전 화	044-202-3020 044-202-36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 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붙임1] 참고

□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 *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 (금리 인하) 2.27% → 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 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2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 23. → 4. 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결정(3. 22. → 4. 5.)

○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지원 2,000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3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붙임1

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p>① 임대료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착한임대인) 인하분 50%에 대해 세액공제('20년 한시) • (중앙정부·지자체) 소유건물 임대료에 대해 50~80% 인하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차료 20~35% 인하(6개월) ○ 가맹점에 부담을 완화해준 가맹본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상세기준 추후 확정) 															
<p>② 금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확대(200→5,000억원+추경, 금라 1.75→1.5%) ○ 16개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0.1→1조원, 보증요율 1.0→0.8)) ○ 초저금리 3배 확대(기은, 1.2→3.2조원, 보증료 1년간 감면(약 0.8→0.5%))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원)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500→550억원) ○ 업종별·부문별 금융지원 추가 확대(금융위, 문체부 등) * (관광업) 용자 800억원 추가지원 / (식품외식업) 용자 200억원 / (항공업) 긴급용자 3000억원 / (해운업) 600억원 / (자동차부품) 시설투자 자금 															
<p>③ 세금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경감('21년 말까지, 연평균 20~80만원) ○ 국세 및 지방세 지원(코로나19 피해 납세자) <table border="1" data-bbox="446 1243 1420 136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신고·납부 유예</th> <th>징수 유예</th> <th>체납처분 유예</th> <th>세무조사</th> </tr> </thead> <tbody> <tr> <td>국세</td> <td>최대 9개월</td> <td>최대 9개월</td> <td>최장 1년</td> <td>착수 중단</td> </tr> <tr> <td>지방세</td> <td>최대 1년</td> <td>최대 1년</td> <td>최대 1년</td> <td>일정기간 유예</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고·납부 유예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국세	최대 9개월	최대 9개월	최장 1년	착수 중단	지방세	최대 1년	최대 1년	최대 1년	일정기간 유예
구분	신고·납부 유예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국세	최대 9개월	최대 9개월	최장 1년	착수 중단												
지방세	최대 1년	최대 1년	최대 1년	일정기간 유예												
<p>④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확대(2.5→3.0조원), 1인 구매 한도 상향(월 70→1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3→6조원), 할인율을 5→10%로 한시상향(4개월) ○ 1개 정부·공공기관-1개 전통시장 간 1:1 자매결연 															
<p>⑤ 내수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40→80%,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60%, (신용카드) 15→80% ○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집행 ○ 공무원 주2회 외부식당이용 및 점심시간 확대(60→90분) 권고 ○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 : 주 1회, *지자체 : 위탁식당 주1회, 직영식당 주 2회 * 공공기관 :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을 위한 지침 전달 ○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행사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오늘 기재부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후 씬머리.

1. 현재 치료약 없음. 환자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한사람은 방법이 없이 방치.
2. 치료가 되어도 일반 폐렴보다 폐손상이 많아서 폐활량 손실이 엄청크다.
3. 백신은 4월경이 되어야 나올것임.
4. 이 바이러스는 직바로 폐를 손상시킴.
5. 금년 4월까지 하나투어.모두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모두 부도. 해서 정부에 인건비 50% 보조 요청.
6. 이번달 제주 여행취소 98%.
7. 메르스는 일정지역 여행만 자체가 되어 전세계 관광에 부분적 영향. 이번것은 전세계 대상.
8. 우리나라는 4월이 peak 가 될것임.

요점은 절대 걸리지 말것. 치료되어도 완치가 아니고 폐손상이 너무 심각.

오후 1:39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